

2026
올림포스
문학

2026 올림포스 현대시 1-2 | 장수산 1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벌목정정(伐木丁丁)***(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고요한 상태를 드러냄.) **이랬거니**(: 예스러운 어미 활용. **현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미가 아니므로 어미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람드리 큰 솔**(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큰 소나무)이 **베어짐 직도 하이**(= 베어질 법도 하다. → 실제로 화자가 벌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님. **화자가 나무가 벌목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청각적 이미지. 음성 상징어 활용) **돌아옴 직도 하이**(= 돌아옴 법도 하다. '~도 하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청각적 이미지. 장수산이 그만큼 고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장수산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함.)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장수산의 깊은 고요함.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촉각화)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너!**(계절적 배경: 겨울.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를 부각함. 영탄법)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보름달이 뜬 밤에 골짜기를 걷는 상황을 운치 있게 표현함. 설의법) **웃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월적 경지.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후각적 이미지. 여유와 자족의 초월적인 정신적 세계)를 **줍는다?**]([]: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화자가 줍는 것은, '웃절 중'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임. 공감각적 이미지: 후각의 시각화)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시어의 대립: 고요와 시름. 화자의 내면적 동요 → 고요한 장수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 **두 시어를 대비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명사와 줄표를 활용해 시상을 마무리함. 시름을 이겨 내겠다는 다짐. 영탄법)]([]: 장수산에서 화자의 시름이 극복되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장수산에서 시름을 견디고자 할 뿐, 시름을 극복한 것은 아님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직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음'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 정지용, 「**장수산**(① 세상과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 ② '웃절 중'의 이미지와 동질적 ③ 화자가 세속적 욕망을 떠나 무념무상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공간.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1」

핵심 정리

- 갈래: 산문시, 서정시
- 성격: 산문적, 서술적, 탈속적, 초월적, 동양적, 감각적
- 주제: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지향
- 특징
 - 청각과 시각을 통해 산중의 정경을 형상화함.

2026
올림포스
문학

2026 올림포스 현대시 1-2 | 장수산 1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 밤내—

— 정지용, 「장수산 1」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변형 문제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 ③ 명사와 줄표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④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변형 문제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적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고요함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각을 촉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밤의 순수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웃절 중’의 탈속적인 정신세계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변형 문제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인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삶과 인간을 돌아보고 그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연은 시인이 추구하는 모습을 지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과 세상살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장수산’이라는 절대 고독의 공간 속 풍경과 사람을 통해 탈속의 경지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를 통해 문명의 폭력 앞에 파괴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을 통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를 통해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본받아 세속적 번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④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통해 자연의 고요함과 대비되는 화자의 인간적인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를 통해 세속적 감정에서 벗어난 절대 고독의 경지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깊은 산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고 표현하여 겨울 산의 극심한 추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다고 표현하여 장수산의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져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하다고 표현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화자가 '줍는'다고 표현하여 '늙은 사나이'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함께 표현하여 장수산이라는 공간과 화자의 내면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5~8】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꾼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
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꽃꽂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사랑은 갓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
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 고재종, 「고요를 시정하다」

5.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

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윗글의 '깊은 산 고요'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윗글의 '멧새' 소리와 <보기>의 '동박새'의 울음은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대조적으로 부각하는 것이겠군.
- ③ 윗글의 눈, 밤, 달의 흰색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요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보기>의 '소박한 고요', '묵묵한 고요'는 이와 어울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 형상화된 고요의 모습이겠군.
- ⑤ 윗글의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는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대비되고, <보기>의 '삼베 올만 치나 무수한 고요'는 화자의 평화로운 내면세계를 드러내겠군.

6.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공간적 배경의 활기찬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배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윗글의 화자의 내면과 조응한다.
- ② ㉡는 <보기>의 화자가 술을 마시며 과거 속 인물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각각 윗글과 <보기>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 ⑤ ㉡는 ㉠와 달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며 갈등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8.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은 예스러운 어미를 활용하여 고아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보기>는 색채 이미지를 대조하여 계절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윗글은 <보기>와 달리 특정 인물을 통해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 ④ 윗글과 <보기>는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적인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
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
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
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
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높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좁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
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1」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

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쩍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고요한 내면을 구체적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향토색을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
- ⑤ 직유법, 대구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 윗글의 시어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벌목정정’의 ‘정정’은 한자의 음을 차용하여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② ‘뺨을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적막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③ ‘조찰히 늙은 사나이’는 화자의 정신적 품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④ ‘내음새를 좇는다’는 인물의 탈속적인 삶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은 화자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⑤ ‘오오 견디란다’는 대상을 통해 깨달은 삶의 자세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흥을 드러낸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수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자세가 나타난다.
- ② 번잡한 속세의 모습을 청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선명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벌목정정(伐木丁丁)’을 통해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나무 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12. 윗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물아일체의 평화로움을 누리는 경지
- ② 세속적 번뇌와 감정을 벗어난 절대적 고요의 경지
- ③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후 맛보는 성취감과 환희의 경지
- ④ 이웃과 더불어 소박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경지
- 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잠겨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경지

13. 윗글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대상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다.
- ② 감각의 대비를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극복 의지를 다진다.
- ③ 화자의 예리한 감각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를 탐구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⑤ 특정 감각을 부각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의 탈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14. ㉠ 행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웃절 중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 그의 흔적을 더듬고 있다.
- ② 웃절 중처럼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본받으려 한다.
- ③ 웃절 종과의 만남이 남긴 즐거운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려 한다.
- ④ 웃절 중이 남기고 간 쓸쓸함과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⑤ 웃절 중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15. 윗글에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된 주된 대비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란함 - 고요함
- ② 밝음 - 어둠
- ③ 과거 - 현재
- ④ 화자의 내면 - 자연의 상태
- ⑤ 개인의 운명 - 공동체의 현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에서 '견뎌'의 자세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시에서는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의 자세로, 또 다른 시에서는 사랑하는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내면의 고통이나 번뇌를 이겨내고 어떤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견뎌'가 형상화되기도 한다.

- ①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기희생적 자세이다.

- ② 떠나간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이다.
- ③ 자신의 '시름'을 이겨내고 탈속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정신적 수양의 자세이다.
- ④ 혹독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소극적으로 버티는 자세이다.
- ⑤ 언젠가 자연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자세이다.

17. 윗글에 나타난 '인간(화자)'과 '자연(장수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은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인간은 자연에 감사하는 상호 교감의 관계이다.
- ② 자연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고, 인간은 이를 극복해야 하는 투쟁의 관계이다.
- ③ 인간과 자연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완전히 단절된 관계이다.
- ④ 화자는 자연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을 닦고자 하는 지향의 태도를 보인다.
- ⑤ 인간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연은 인간에게 굴복하는 관계이다.

18. 다음 중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름이 가득 찬 삶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다.
- ② 적막한 겨울 산을 찾아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 ③ 장수산과도 같은 호연지기의 모습을 갈망하고 있다.
- ④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의 우렁찬 소리를 듣고 있다.
- ⑤ 집착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

24. 화자가 ‘웃절 중’을 떠올린 후에 ‘견디란다’고 다짐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웃절 중’의 정신적 경지를 서술할 것.
- ‘화자’의 내면 상태를 서술할 것.
- 두 인물의 상태를 대비하여 ‘견디란다’의 의미를 설명할 것.

25. ㉠와 같이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26. ‘웃절 중’과 ‘시름’에 빠진 화자의 모습을 대비하여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탈속적 삶’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낼 것.

27. 윗글의 화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어떠한 자세로 극복하고자 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화자는 ~을(를) ~에 묻고, ~고자 하고 있다.’의 형식으로 쓸 것.

O/X 문제

28. 화자는 ‘벌목정정’ 소리와 ‘메아리 소리’를 실제로 들으며 장수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O / X)

29. 이 시에서 ‘흰색’의 이미지는 시 전체에 차갑고 순수한 분위기를 부여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탈속의 세계를 상징한다. (O / X)

30.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청각적 심상을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O / X)

31. 화자는 웃절 중의 탈속적인 모습을 본받아, 마침내 마음의 시름을 모두 떨쳐내고 평온을 얻었다.
..... (O / X)

32. 이 시는 자연 속에서의 고독을 통해, 화자가 떠나온 세속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O / X)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한밤내’에서 명사와 줄표를 활용해 절대 고요라는 시상을 집약하여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시는 화자의 내면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을 건네는 대상인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적도 하이’라는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지만,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점층적 반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 전체에 화자의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운다’는 부분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있으나,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므로 ‘비판적 태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시는 산 전체의 소리를 상상하다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뿐, ‘원경 → 근경’의 순서로 시상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2. 정답 ①

㉠의 ‘벌목정정(伐木丁丁)’은 나무 베는 소리를 나타내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오히려 주변의 깊은 정적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자연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쩌르렁’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메아리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통해, 그 소리가 울릴 만큼 깊고 고요한 장수산의 적막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③ ㉡은 깊은 고요함이 마치 뼈를 저리게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청각적 상황을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의 ‘희고녘!’라는 감탄은 눈이 내린 겨울밤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흰색의 이미지는 시 전체의 차갑고 순수한 느낌을 강화하며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⑤ ㉣의 ‘내음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여섯 판을 다 지고도 웃으며 올라가는 ‘늙은 사나이(웃절 중)’의 세속을 초월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3. 정답 ①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다’는 것은 실제로 나무가 베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럴 법한 소리가 울릴 정도로 깊고 울창한 산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표현이다. <보기>의 관점에서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탈속의 공간인 ‘장수산’의 깊이를 드러내는 장치이지, 문명의 폭력이나 자연 파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달’이 보름을 기다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장수산의 순수하고 완전한 세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와 연결하여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여섯 판을 모두 지고도 웃는 ‘웃절 중’의 모습은 승패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탈속적 경지를 보여준다. 화자는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 자신의 ‘시름’을 극복하고자 한다.

④ **[매력적인 오답]**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장수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심하게 흔들리는 화자의 ‘시름’을 대비시켜, 탈속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인간적인 고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세속적인 감정인 ‘슬픔’과 ‘꿈’조차 없이 ‘차고 울연히’ 존재하는 장수산의 겨울밤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절대 고독의 경지이자 탈속의 세계를 상징한다.

4. 정답 ①

화자의 ‘뼈를 저리’우게 하는 것은 ‘깊은 산 고요’로, 장수산의 적막감을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통해 겨울 산의 극심한 추위를 형상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다는 표현을 통해 장수산에 눈이 쌓였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져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올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은, 큰 소리를 형상화하여 고요한 깊은 장수산 속의 분위기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④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화자가 ‘줍는다

는 것은 그것을 좇고자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화자가 ‘늙은 사나이’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장수산은 ‘바람도 일지 않’을 만큼 고요한데 화자의 내면은 ‘심히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공간과 화자의 내면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정답] ②

<보기>의 ‘동박새’는 울음을 통해 고요를 대조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윗글의 ‘멧새’는 울지 않고 있으므로 장수산의 고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고요를 대조적으로 부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① ‘고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⑤ 윗글의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는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대비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주변 풍경을 묵묵히 관조하고 있으므로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화자의 평화로운 내면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보기> 작품: 고재종, 「고요를 시청하다」

- 주제: 오월의 시골집 마당의 싱그럽고 고요한 모습
- 특징
 - 중심 제재인 고요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6. [정답] ③

윗글은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등을 통해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고, <보기>의 ‘덩굴 장미가 내쉴 향기’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활기찬 분위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① 두 작품은 고요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고요함은 정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② 윗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와 <보기>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 ‘초록의 군림’, ‘붉은 진동’, ‘초록바람’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각각 겨울과 봄(초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윗글에는 큰 소나무가 벌목되어 ‘쩌르렁’하는 소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을 통해, <보기>는 감나무에 앉은 동박새가 우는 소리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⑤ 윗글은 장수산이라는, <보기>는 시골집 마루라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7. [정답] ②

<보기>의 화자는 ⑥에서 ‘송순주’를 마시며 어머니, 아버지,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통해 윗글의 화자의 내면은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와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매력적인 오답] ①에서 윗글의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의 ‘고금의6’의 ‘고금’은 외로운 잠자리라는 의미로, 단순히 고요한 시골집을 형상화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각각 ①과 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 공간을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⑤ ①과 ⑥은 모두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8. [정답] ⑤

윗글과 <보기>에 모두 청각적 이미지가 쓰인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부각할 뿐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 않다.

① 윗글은 ‘-고녀’, ‘-란다’, ‘-노니’와 같은 예스러운 어미를 통해 고아한(뜻이나 품격 따위가 높고 우아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초록과 빨강의 색채 이미지를 대조하여 오월(봄 혹은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윗글은 ‘웃절 중’이라는 특정 인물을 통해 무욕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요한 집의 분위기가

어울렸던 그리운 대상일 뿐,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다.

④ 윗글은 '겨울'이라는 시어를 통해, <보기>는 '오월'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③

'벌목정정'의 '정정', '쩌르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인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에서 화자의 내면은 고요한 장수산과 달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사투리는 쓰이지 않았다.
- ⑤ 직유법이나 대구법은 쓰이지 않았다.

10. 정답 ③

'조찰하다'는 '아담하고 깨끗하다'의 의미로, 화자가 아닌 '웃절 중'의 깨끗하고 고결한 내면세계를 드러낸 표현이므로 화자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 ① '벌목'은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고 '정정(丁丁)'은 한자 '고무래 정' 자의 음을 차용하여 도끼로 나무를 내리찍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② 뼈가 저린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고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내음새'는 '웃절 중'의 무욕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므로, 이를 줍는 화자의 모습은, '웃절 중'은 탈속적인 삶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은 화자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화자는 '오오 견디랴다'라고 말하며, 장수산의 고요한 풍경과 '웃절 중'을 통해 깨달은 삶의 자세를 실천하며 복잡한 내면을 다스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11. 정답 ⑤

이 시의 화자는 장수산이라는 고요한 공간적 배경에서 시름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① 현실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 ② 고요한 산중의 모습을 감각적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속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

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색채의 대비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벌목정정(伐木丁丁)'은 나무를 베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12. 정답 ②

화자는 '시름은 ...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하여 세속적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에서는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슬픔)과 미련(꿈)을 모두 초월한 절대적 고요의 상태, 즉 탈속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① 화자는 자연과 일체가 되기보다는, 자연처럼 '차고 울연히' 거리를 두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 ③ 시련 극복 후의 성취감이나 환희보다는 번뇌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추구한다.
- ④ 시에는 공동체나 이웃이 등장하지 않으며, 화자는 철저히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사유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시름'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13. 정답 ⑤

이 시는 '뼈를 저리우'는 듯한 촉각, '종이보다 흰' 시각, '벌목정정'이나 '메아리' 같은 청각 등 예리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다. 이러한 감각들은 모두 장수산이라는 공간이 지닌 극한의 고요함, 차가움, 순수함을 부각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세속을 벗어난(탈속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① 나무 베는 소리(벌목정정)는 오히려 깊은 산의 고요를 강조하므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② 현실의 비극을 고발하는 사회 참여적인 시가 아니다.
- ③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기보다는, 자연의 분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체험이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일 뿐,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14. 정답 ②

'웃절 중'은 여섯 판의 바둑을 모두 지고도 '웃고 올라'가는 인물로, 이는 승패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